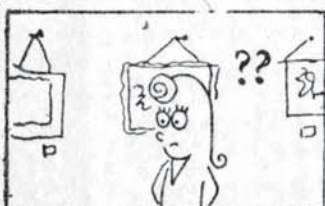


12



「천년을
연재를
끝내면
산다」

전 재 현 (미교 · 1)

[illegible]

강 승 욱 (행정 · 1)

꽃과 푸른
토로 무친
은은 향신
고 우슬재
에 일어난
아랑 못
처하먼서도
떨지 못한
음으로
이상을 참
어는 불
지금도 내
강조하는
도 수만은
들음 느
생각과 행
반되는
술, 아
자가 강하
며서도 무
보지도 않
우의 피

강 방 영 (영교·3)

가을 비 오는 날,
비로소
그리움을 깨달아
끝짜기에,
동성이에,
차갑게 떨어져 내린다.

이체련 (수교·4)



'는' 뜻이
했었다.
졌던. 일학년 때의
이다. 시간이 흘렀

머뭇거리고
아직은 어
만

우리 둘레가 자꾸
만 글을 쓴다는 세
게서서 멀어지지만
생애순에 다 나가 무었
인가 쓰고 싶어 의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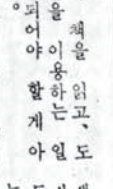
가끔은 쓰고 싶다.

그게 쓰고, 읽고, 잊
어버리는 작업의
부이 되는 한이 있
더라도.

문이다.

^연재단편^

이 체련 (수교·四) 클
전 재 현 (미교·一) 그림



최 정 열
(관광 · 1)

圖
書
館

옥진
(미교·2)

이번 호로 「천년을 산다」
를 냅니다.
다음 호부터 연재될 여량이
생의 단편을 모집하오니 많
있길 바랍니다.
1977. 11. 1

濟大新報

[illegible]

<전화 (2) 4508>

제주대학 자연보호회
회원일동

韓國語文教育研究會